

‘K리그1 우승’ 전북, 연봉도 1위... 14억 김진수 ‘연봉킹’

총액 158억733만원 리그 최고...울산 현대→FC 서울→수원 삼성 순
11개 구단 총액 844억원...전북, 1인 평균 4억7901만원 상위권 싸움이

K리그1 우승팀 전북 현대가 ‘연봉 1위’ 타이틀도 차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0일 2019시즌 K리그 연봉을 발표했다. 정규시즌 3연패에 성공한 전북 현대가 158억 733만 3000원으로 K리그 1, 2를 통틀어 최고 연봉 총액을 기록했다. 전북 수비수 김진수는 올 시즌 14억 3500만원을 받으면서 ‘연봉킹’ 자리에 올랐다. 2019 연봉은 군필 상주와 경찰 의무복무 선수

포함된 아산을 제외한 K리그 11개 구단과 K리그2 9개 구단 선수들을 대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출전 수당, 승리 수당, 무승부 수당, 기타 수당 등)을 더해 산출했다. 산출 대상은 2019시즌 리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각 구단에 등록된 선수들로 시즌 중간에 이적, 임대, 계약 해지한 선수는 제외했다. 수당은 FA컵과 AFC 챔피언스리그를 제외한 K리그 2019 경기에 대한 수당만을 대상으로 계산했

다. K리그1 11개 구단 소속 선수 연봉 총액은 844억 2438만 6000원이다.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9911만 4000원. 158억 733만 3000원의 전북에 이어 울산 현대(119억 9335만 3000원), FC 서울(84억 7355만 3000원), 수원 삼성(76억 8956만 7000원)이 연봉 총액 상위팀을 구성했다.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에서도 전북이 4억 7901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울산 3억 5274만 6000원, 서울 2억 175만 1000원, 강원 1억 9160만 4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수 최고 연봉 상위권 자리도 전북 선수들

이 싸움이 됐다. 14억 3500만원의 김진수에 이어 신형민(10억 4550만원·MF), 이동국(10억 1054만원·FW), 홍정호(8억 7060만원·DF), 최철순(8억 2438만원·DF) 등 전북 선수들이 연봉 1위부터 5위 자리를 독차지했다. 외국인 선수 최고 연봉 1위도 전북의 몫이었다. 전북 로페즈(MF)가 16억 5210만원으로 외국인 선수 최고의 몸값을 자랑했고, 서울 페시치(15억 2638만 6000원·FW), 울산 주니오(10억 7780만 원·FW), 경남 록(9억 7514만 4000원·FW), 서울 오스마르(9억 3650만 원·MF) 순이다. K리그2 9개 구단의 연봉 총액은 286억 9763만

원, 1인당 평균 연봉은 8940만 1000원이다. ‘기업 구단’인 부산 아이파크가 가장 많은 49억 2885만 3000원을 연봉으로 진출했다. K리그2에서 첫 시즌을 보낸 전남 드래곤즈가 46억 6089만 3000원, 수원FC가 40억 2853만 1000원의 연봉 총액을 기록했다. 2019시즌 K리그2 왕좌를 차지한 광주 FC가 31억 8839만 9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K리그1 우승팀 전북 연봉 총액의 20.1% 수준이다. 평균 연봉도 부산 1억 4082만 4000원, 전남 1억 2597만 원, 수원FC 1억 329만 6000원, 광주 8856만 7000원 순으로 드러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림픽 男 축구 최종예선 백승호·이강인 합류 불발

엔트리 발표...수비 윤종규 합류

9회 연속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김학범 감독의 남은 한 자리는 ‘유럽파’ 백승호(22·다름슈타트)와 이강인(18·발렌시아)의 합류 불발로 수비수 윤종규(21·서울)에게 돌아갔다.

대한축구협회는 30일 “윤종규가 U-23 대표팀에 추가 소집돼 이날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합류한다”고 밝혔다.

김학범(59) U-23 대표팀 감독은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예선전인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 나설 23명의 최종명단을 지난 24일 발표하면서 1명을 남겨 놓고 22명만 발표했다.

최종 명단 발표를 앞두고 김 감독은 유럽에서 뛰는 정우영(프라이부르크), 백승호, 이강인 등 3명의 합류를 위해 공을 들였다. AFC U-23 챔피언십이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캘린더에 있는 대회라 아니라서 소속팀의 허락이 필요해서다.

김 감독은 11월에도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와 함께 유럽 출장을 통해 이들 3명 선수의 소속팀 관계자들을 만나 대회 차출을 부탁했다.

정우영의 합류는 성사됐지만 백승호와 이강인의 소속팀으로부터는 여전히 ‘오케이 사인’을 받지 못했고, 김학범 감독은 최종 명단을 기다리며 한 자리를 비워놓고 22명의 명단만 확정해 28일 말레이시아 전지훈련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백승호의 소속팀인 다름슈타트는 팀의 핵심 자원인 만큼 AFC U-23 챔피언십 조별리그만 뛰고 복귀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인의 소속팀인 발렌시아는 차출에 호의적이었지만 지난달 허벅지 다친 이강인이 치료를 위해 국내로 돌아와 재활하는 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백승호와 이강인의 차출은 성사되지 못했고, 김학범 감독은 남은 한 자리를 K리그 3년 차 수비수 윤종규로 채웠다. /연합뉴스



“공 좀 봅시다” 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93회 슈평글러 컵 아이스 하키 토너먼트에서 TPS 투르쿠(핀란드)의 토니 전드(왼쪽)가 HC 엠브리-피오타(스위스)의 로버트 사블리치의 드리블을 견제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HC 엠브리-피오타가 TPS 투르쿠를 3-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류현진 “동부지구 강타선 제구로 승부... 김광현 만나면 안질 것”

토론토서 귀국... “14승·플타임 출전이 목표”

‘토론토 맨’으로 변신한 류현진(32·토론토 블루제이스)은 새 출발을 상징하듯 푸른 계열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는 30일 청색 계열의 캐나다 브랜드 패딩점퍼를 입고 아내인 배지현 아나운서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머리카락은 새로 염색한 푸른색이었다. 푸른색은 토론토 구단의 상징색이다. 류현진은 “토론토 관계자들이 매우 반겨줘 고맙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시즌을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목표를 묻는 말엔 “미국에 처음 진출한 2013년 정도의 성적(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 정도는 거두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에 계약한 류현진은 1월 초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한 뒤 2월 미국 플로리다로 출국해 토론토 스프링캠프에 합류한다. 다음은 류현진과 일본일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강팀이 많은 격전지인데.

▲내가 가진 구종을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 제구가 첫 번째다. 제구가 잘 되면 장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메리칸리그는 지명타자제도가 있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KBO리그에서도 지명타자제도가 경기장을 치렀다. 내셔널리그와 차이는 있겠지만, 크진 않을 것 같다.

-토론토의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는 홈런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데.

▲모든 구장은 똑같다. (홈런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콜로라도(쿠어스필드)에서도 던졌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한 김광현과 맞대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 둘 다 안 지려고 할 것이다. 한국 투수 맞대결만으로도 뜻깊을 것 같다.

-고교(동산고) 후배인 최지민(렘피베이 레이스)과 맞대결을 많이 할 것 같다.

▲지민이가 올해 자리를 잘 잡았다. 내년엔 많은 경기를 할 텐데, 후배라고 봐주진 않을 것이다. 봐주면 지민이가 기본 나쁠 것이다. 대결은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에이스 투수가 됐는데, 첫째 성적 목표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성적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

-토론토의 1선발이다.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없나.

▲당연히 책임감이 있다. 그러나 1선발이든 5선발이든 똑같은 것 같다.

-각오를 밝혀달라.

▲올해처럼 아프지 않고 풀 시즌을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토트넘 최고의 골 투표 손흥민, 4골 올라 ‘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2010년 대 최고의 골을 뽑는 토트넘 자체 투표에서 가장 많은 4골을 후보로 올렸다.

토트넘은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0~2019년 최고의 골’ 투표를 벌이는 중이다. 투표는 구단이 자체 선정한 25개 후보 골 가운데 팬이 하나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트넘 팬들을 가장 많이 들뜨게 한 25개의 골 가운데 손흥민은 팀의 간판답게 가장 많은 4개의 골을 후보로 올렸다.

지난 8일 번리전에서 넣은 70여m 질주 슈퍼골을 비롯해 지난 시즌 첼시전에서의 ‘50m 질주골’, 2017~2018시즌 크리스털 팰리스전 중거리 골과 웨스트햄전 ‘25m 벱라 골’이 팬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이적하면서 1500여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적료를 토트넘에 안겼던 개러스 베일이 4개의 골을 후보로 올려 손흥민과 동률을 이뤘다.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 공격을 책임지는 해리 케인과 말리 알리는 각각 2골, 3골이 후보로 선정됐다. 토트넘의 ‘2010~2019년 최고의 골’ 투표는 홈페이지(<https://www.tottenhamhotspur.com/fans/goal-of-the-decade/>)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한 류현진과 부인 배지현 씨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